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6. 3. 21.

금 융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금융개혁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작년 1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24년만에 탄생하는 신설 은행이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적인 기대도 큰 사안이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은

상호협력 하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관련 제도개선 노력

그동안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와 각종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를 작년말부터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을 미리미리 논의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좋은
제도적·정책적 환경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카드·보험업 등 영위 가능>

우선, 온라인 금융환경 변화에 맞도록
금융규제를 정비해 온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금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이 개정되어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의 경우 작년에 온라인을 통한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고,

투자자문업무나 일임형 ISA 판매업무도
금년중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간편결제 등 디지털은행 기반 마련>

실명확인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거래 규제도
수십년만에 변경되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가 핀테크를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를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제시스템 사전연계 등 신설은행 설립 지원>

또한,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금년중 도입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본인이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하여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립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당부사항

앞으로도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들도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은행시스템 마련>

“금융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생명”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조속히 출범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산보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반에 걸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IT DNA가 융합된 은행 문화>

또한, I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문화가
금융분야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모델,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되고 보다 선진화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중심 문화가 처음부터 도입되도록
여기 계신 임·직원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은행을 만들어서 취업선호도 상위를 차지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까지 염두에 둔 혁신적인 사업모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구축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없이
단순한 가격경쟁에 몰두하다가는
수년내에 시장에서 고사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되는
간편결제, 중금리 대출, 온라인 투자자문 분야의 경우
이미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여러분의 **전략적인 고민과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소 앞서나간 바램일 수도 있지만,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세계 183개국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금융산업은
여전히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하고,
금융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과 **다른 DNA**를 갖고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연못 안의 메기’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여러분들도
국민들께서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지지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은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
즉, 국민들이 원하는 은행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은행법」 개정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 금융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도 4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TF**」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본인가 심사준비, 전산설비 구축 등과 관련하여
현장과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분들도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내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